올 충장축제 평가·방문객 분석 자료 보니

프로그램 '만족' 편의시설 '불만'

타지역 관광객 28.7%로 늘고
1인당 지출 비용은 13% 줄어
주차장 확보·쾌적성 개선 필요

지난 10월 열린 '제12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주차편리성과 편의시설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타지역 관광객 비율이 전년도보다 늘었지만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배재대 관광이벤트 연구소가 발표한 '제12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축제평가 및 방문객분석 자료에 따르면 '축제 프로그램'과 '축제 재미'가 7점 만점 중 각각 5.48점과 5.43점을 받았다. 또 '재방문과 타인 방문 유도'(5.39점), '축제 안내 시스템'(5.03점) 등에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충장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추억의 테마거리와 거리퍼레이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매년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이 4.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축제장 내 편의시설'(4.31점), '축제 기념품'(4.35점) 등이 약점으로 드러났다.

축제기간 금남로를 찾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기념품 판매대가 상가 및 건물 사이에 위치해 있어 방문객들이 쉽게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방문객 중 전남 등 타지역 관광객은 28.7%로 지난해(23%) 보다 5%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지출비용은 4만6168원으로 전년(5만3044원)도 보다 13%(6876원)나 줄었다. 식·음료비가 2만4006원에서 1만8241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축제 기간 대규모 할인판매로 인해 쇼핑비는 1만1691원에서 1만5027원으로 늘었다.

체험프로그램 중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24.1%가 '체험공간 협소 및 쾌적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프로그램 정보부족'(19.9%), '신규프로그램 부족'(16.4%), '프로그램 수 확대'(12.6%), '장시간 대기'(8.7%)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연프로그램에서는 응답자 중 33%가 '관람석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답했고, '타 축제와 차별성이 부족하다'(20.6%)와 '신규프로그램 부족'(17.2%)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이번 평가는 올해 20세 이상 성인 방문객 237명을 대상으로 12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으며, 광주시 동구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 평가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매화골 희망산타들의 나눔 음악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 50여명이 17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하나로마트 앞 광장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2015 매화골 희망산타 프로젝트 사랑나눔음악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병원서 CT 검진받은 40대 남성 돌연 사망

유족 "조영제 투약 부작용"

조영제(영상검사를 돕는 약품)를 투약받은 뒤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진을 받은 40대 남성이 돌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3분께 광주 서구 M병원에서 내원환자 김모(40)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씨는 뇌 CT 검진을 받고 나서 구토 증상 등을 보이며 쓰러졌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지역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기 검진 예약과 감기 진찰을 위해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숨진 것이다.

유족들은 숨진 김씨에게 투약 된 CT 조영제에 대해 병원 측이 사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금식 여부도 묻지 않았다며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CT 조영제가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 전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 측이 이를 생략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조영제는 CT,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투입하는 약품으로 호흡곤란, 쇼크사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10억 수출보증 대출사기 공직자들

검찰·세관·세무서·은행에
중기청·무역보험공사까지
광주지검 순천지청, 17명 기소

전남경찰청 소속 총경을 구속한 110억원대 수출업자 수출보증 대출사기 사건〈광주일보 11월19일자 7면〉은 경찰간부뿐만 아니라 검찰, 세관, 세무서, 은행,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관련 공직자들이 대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보증 대출사기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을 받은 수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10억여원을 대출받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G산업통상 대표 A(39)씨 등 모두 9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간부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을 받은 허위 수출채권을 담보로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10억여원을 대출받아 해외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무역보험공사와 경찰 간부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G산업통상 해외지사장 B(31)씨 등 회사 간부 2명도 함께 구속됐다.

또 구속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김모(57) 총경은 A씨의 범행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에 전화해 수출보험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등 각종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A씨로부터 수출보험과 수출보증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9200여만원을 받은 무역보험공사 지사장 C(54)씨를 비롯해 전·현직 간부 5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간부는 수출보험과 수출보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청 5급 간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별정직(1급), 모 세관 직원, 모 세무서 직원 등 7명이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00만~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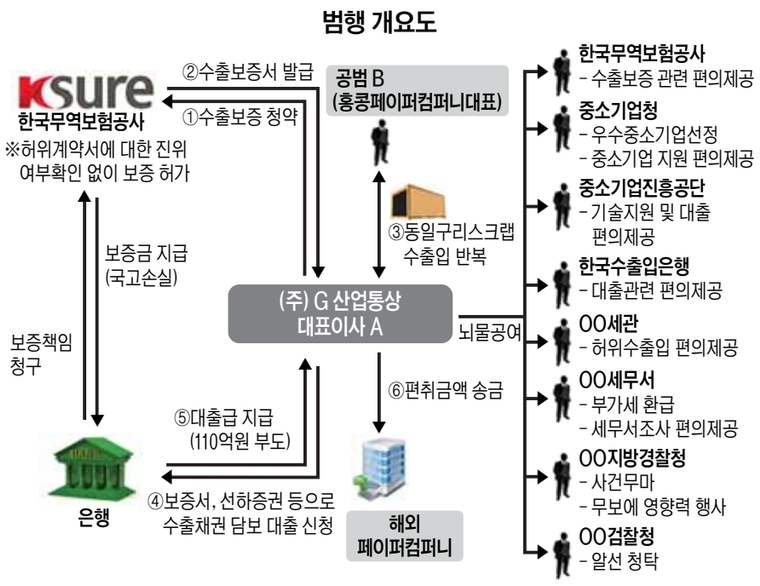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수출계약서를 위조해 허위로 중국에 구리고철을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서를 발급받아 광양세관을 통해 홍콩의 유령회사로 운반한 뒤에 이를 다시 한국으로 그대로 반송해 재수입하는 이른바 같은 구리고철의 수출입을 반복하는 '뺑뺑이 무역'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역보험공사 해외지사에서도 허위 연락처가 기재된 수출계약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수출계약서에 일반 구리고철 단가보다 10배 이상 비싼 비정상적인 단가로 표기돼 있었음에도 뇌물을 받고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추적해 국내 차명 재산과 국내 부동산, 뉴질랜드 등 국외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받은 14억원 등 모두 95억여원의 재산을 확보해 추징했다.

조남관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여수세관과 긴밀한 수사협조로 수출보증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경찰·시청직원 등 6명…성매수 공무원들

'여수 여종업원 뇌사사건' 업주 폭행으로 사망 확인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뇌사 사망 사건'의 피해자가 업주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단순사고로 보고 초동수사를 진행했던 여수경찰은 부실수사로 가해자의 증거인멸 등을 도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유흥주점 성매수자 명단에는 여수지역 소방관,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여수경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유흥주점 여종업원 A(3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실제 업주인 박모(여·42)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를 도와 업소 내부 CCTV와 장부 등 증거를 인멸한 남자종업원(23)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부터 119 구급대가 도착한 20일 오전 0시42분 사이 여수시 학동 모 유흥주점 룸에서 A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51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과 해안경비안전서 경찰관 1명, 여수시청 공무원 2명, 국세청 공무원 1명, 소방관 1명 등 총 6명의 공무원이 성매수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업소와 공무원 간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공격 소문에…패싸움 벌인 조폭들

쌍나팔

○…'상대 조직원이 공격하려 한다'는 사소한 소문으로 인해 초등학교 앞에서 패싸움을 벌인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쇠고랑.

○…17일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손석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둔기 등을 들고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 신양OB파 행동대원 한모(22)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함께 패싸움을 벌인 국제PJ파 조직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광주의 양대 폭력조직 행동대원들로 사소한 소문 때문에 패싸움을 벌였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만나 서로 사건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했지만 CCTV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 /박정욱기자 jwpark@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써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 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공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의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 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